

파이널B 광주FC...포항 스틸러스, 인천 유나이티드 FC, FC서울, 강원FC, 성남FC 상대 운명의 5연전

잔류 '사활'...“희망의 불씨 살려라”

오는 31일 강원FC와 홈 맞대결

'광탄소년단+김종우' 발끝 주목 첫 단추 잘 꿴고 역전 드라마 쓴다



프로축구 K리그1 우승 팀과 강등 팀을 가리는 팀 당 마지막 5연전의 막이 오른다.

파이널B로 몰린 광주FC는 오는 31일 오후 7시 광주 축구전용구장에서 강등권 경쟁자인 강원FC와 하나원큐 K리그1 2021 34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비록 승점 32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지만 9위 FC서울, 10위 강원, 11위 성남FC(이상 승점 37)와 승점 차가 5점에 불과해 매 경기 사활을 건 총력전을 펼친다는 각오다.

남은 파이널B 경기 결과 12위 팀은 K리그2로 강등되며, 11위 팀은 K리그2 플레이오프 승자와 승강전을 치른다.

지난 라운드 수원FC 원정에서 모처럼 화끈한 공격력을 선보이며 3대1 승리를 거둔 광주는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며 승점 3점 이상의 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경쟁 팀들 역시 승리하면서 승점 간격을 좁히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승리로 위닝멘탈리티와 자신감을 되찾은 광주엔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다.

먼저 광주 유스 출신으로 뭉친 '광탄소년단'이다. 지난 라운드 엄지성, 이희균, 엄원상이 모두 득점에 성공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특히 1골 1도움을 기록한 엄원상은 지난 라운드 최고의 선수(MVP)에 선정되는 등 에이스로서의 면모를 특출히 보여줬다.



지난 24일 열린 수원FC와의 원정경기에서 골을 터뜨린 광주FC 엄원상이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광주FC 제공>

'풍암동 지단' 김종우는 연계플레이는 물론 키 패스와 슈팅으로 공격에 활력을 불어 넣었고, 이찬동과 한희훈은 중원에서 적극적인 압박과 패이팅 넘치는 플레이를 선보였다.

곽광선과 알렉스, 윤보상 등 수비진은 견고한 모습으로 팀 승리에 기여했으며, 박정수는 긴 부상에서 돌아와 그라운드 복귀전을 치렀다.

이번 상대 강원은 현재 승점 37점으로 10위를 기록 중이다. 부상 선수 발생과 코로나19 등으로 부진을 겪었지만 김태원과 신세계, 김영민, 임채민 등 실력이 출중한 선수들과 함께 끈끈한 조직력 축구를 선보이고 있다.

광주는 강원과의 최근 맞대결에서 1-2로 졌지만 지난 20라운드 홈경기에서는 3-1로 승리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린 바 있다. 역대 전적에서 7승 8무 5패로 앞서 있으며, 올 시즌 전적도 2승 1패로 우위다.

또 강원은 잔류 경쟁 중인 서울과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1-4로 패배함과 동시에 지난 27일 대구와의 FA컵 4강전에서 1-0으로 패하며 분위기가 한풀 꺾였다. 또 강릉에서 광주까지 먼 거리가 동도 불가피하다. 체력 저하를 안고 싸워야 하는 만큼 광주에게 호재다.

광주는 강한 전방 압박과 탄탄한 수비로 상대 공격을 막고, 이른 선제 득점으로 강원에게 기세를 꺾어줘야 한다.

광주가 강원전 승리로 K리그1 잔류라는 역전 드라마를 써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희중 기자

분위기를 끌어올린 바 있다. 역대 전적에서 7승 8무 5패로 앞서 있으며, 올 시즌 전적도 2승 1패로 우위다.

또 강원은 잔류 경쟁 중인 서울과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1-4로 패배함과 동시에 지난 27일 대구와의 FA컵 4강전에서 1-0으로 패하며 분위기가 한풀 꺾였다. 또 강릉에서 광주까지 먼 거리가 동도 불가피하다. 체력 저하를 안고 싸워야 하는 만큼 광주에게 호재다.

광주는 강한 전방 압박과 탄탄한 수비로 상대 공격을 막고, 이른 선제 득점으로 강원에게 기세를 꺾어줘야 한다.

광주가 강원전 승리로 K리그1 잔류라는 역전 드라마를 써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희중 기자



지난 27일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2021 하나은행 FA컵 4강 울산 현대와 전남 드래곤즈의 경기기 끝난 후 승리한 전남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2부 반란' 전남, 울산 꺾고 14년 만에 FA컵 결승

“대구FC 나와라”

프로축구 K리그2 전남 드래곤즈가 K리그1 울산 현대를 격파하고 14년 만에 대한축구협회(FA)컵 결승에 진출했다.

전남은 지난 27일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2021 하나은행 FA컵 6라운드(준결승)에서 홈팀 울산을 2-1로 꺾었다.

8강전에서 포항 스틸러스를 1-0으로 꺾은 전남은 울산마저 제압하며 대회에서 마지막으로 우승을 차지한 2007년 이후 14년 만에 결승에 진출했다.

전남은 같은 날 강원FC를 꺾은 대구 FC와 우승컵을 놓고 격돌한다.

결승전은 홈앤드어웨이 방식으로 열린다. 1차전은 내달 24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2차전은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다. 2차전 일자는 미정이다.

FA컵 우승팀은 내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본선 진출 티켓을 얻는다.

울산을 울린 건 2017년 울산에서 뛰며 FA컵 우승에 기여했던 '이중호랑' 이'이중호였다.

경기 초반 탄색전을 펼친 끝에 전남이 선제골로 앞서 나갔다.

전남 22분 김현욱이 코너킥을 울리자 이중호가 뛰어오르며 헤딩 슈트로 골망을 흔들었다.

리드를 잡은 전남은 울산 수비의 허점을 노리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흔들리던 울산이 만회를 노렸지만, 전남의 '짚물 수비'를 뚫어내기는 쉽지 않았다.

전남 32분 바코가 골 지역 왼쪽에서 찬 왼발 슈트 전남 골키퍼 박준혁에게 막혔고, 2분 뒤 역습 상황에는 김성준의 스루패스를 받은 윤일록의 슈트 골대를 외면했다.

전남은 후반 4분 만에 한 골을 추가하며 승부의 추를 더 기울였다.

고전하던 울산은 마침내 후반 33분 전남의 핸드볼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키커로 나선 바코가 한 골을 넣어 한 골을 만회하는 데 그쳤다.

전남은 후반 4분 만에 한 골을 추가하며 승부의 추를 더 기울였다. /연합뉴스

심동섭·차명진·변시원 웨이버 공시

KIA, 백미카엘, 최승주, 김민준 육성선수 말소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선수 6명을 방출했다.

KIA는 28일 "KBO 사무국에 투수 심동섭(사진), 차명진, 변시원에 대한 웨이버 공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투수 백미카엘, 내야수 최승주, 외야수 김민준의 육성선수 말소도 아울러 요청했다.

KIA는 최근 이 6명의 선수들과 단담을 통해 이적이 결정됐다.

2010년 KIA 유니폼을 입은 심동섭은 프로 통산 339경기에 출전해 14승 15패 67홀드 10세이브 평균자책점 4.93을 기록했다.

2015년 21홀드, 2016년 13홀드를 기록했다. /박희중 기자

혹, 불펜에서 주목을 받은 심동섭은 2017년 한국시리즈 4경기에 등판 2홀드로 KIA 통합 우승에 일조했다.

2014년 KIA의 1차 신인으로 입단한 차명진은 1군 14경기 등판해 3승 2패, 평균자책점 6.14를 남겼다.

한편, 웨이버 공시된 선수들은 1주일 이내 영입을 원하는 구단이 나타나면 이적할 수 있다. /박희중 기자

'부상 투혼' 안세영,佛오픈 16강행

2년만에대회두번째 우승 도전

배드민턴 덴마크오픈 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허벅지 부상으로 아깝게 우승을 놓친 안세영(삼성생명)이 3일 만에 다시 참가한 프랑스로프 선수권대회에서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안세영은 2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프랑스로프 여자 단식 32강전에서 레오니스 휴엣(프랑스)을 2-0(21-10 21-9)로 제압했다.

세계랭킹 8위인 안세영은 지난 24일 치러진 덴마크오픈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3세트 도중 허벅지를 다쳐 경기를 포기했다. /연합뉴스

이후 안세영은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않은 상태로 프랑스로프에 참가했지만 세계랭킹 69위인 휴엣을 상대로 한 수 위 기량을 선보이며 수월하게 승리를 챙겼다.

2019년 고등학생 신분으로 프랑스로프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2년 만에 대회 두 번째 우승을 노린다.

지난해 대회는 코로나19로 불참했다. 덴마크오픈 여자 복식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여자 복식 세계랭킹 3위 이소희-신승찬(이상 인천국제공항)조와 여자 복식 세계랭킹 5위 김소영(인천국제공항)-공희용(전북은행)조도 각각 인도와 태국팀을 꺾고 16강에 올랐다. /연합뉴스

“전국체전 고등부 역대 최고 성적 여러분이 빛나는 광주체육 미래”



토트넘의 손흥민이 28일 열린 버리외의 리그컵 16강전에서 후반 결승골을 터뜨린 모라와 기쁨을 나누고 있다. /로이타-연합뉴스

손흥민 24분 맹활약 토트넘, 리그컵 8강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홋스퍼가 버리외를 제압하고 카라바오컵(리그컵) 8강에 올랐다. 손흥민은 후반 중반 교체 출전해 팀 승리에 힘을 보탰다.

토트넘은 28일 열린 2021-2022시즌 리그컵 16강전에서 후반 23분 터진 루카스 모라의 결승골을 앞세워 버리외에 1-0으로 이겼다.

정규리그와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 콘퍼런스리그(UECL)에서 2연패를 한 토트넘은 공식전 3경기 만에 승리를 맛봤다.

8강 대진 추첨은 30일 열릴 예정이다. 손흥민은 후반 21분 교체 투입돼 경기 끝날 때까지 24분간 부지런히 그라운드를 누볐지만, 공격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다.

토트넘이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았지만, 상대 수비를 효과적으로 뚫지 못해 슈팅 기회를 많이 잡지는 못했다.

하프타임 뒤에도 좀처럼 골이 나오지 않자 누누 산투 토트넘 감독은 후반 21분 손흥민과 탕기 은돔벨레를 투입하는 변화를 줬다. 그 직후 모라가 승부를 결정짓는 골을 뽑아냈다.

후반 23분 에메르송이 오른쪽에서 넘긴 코스를 헤더로 마무리했다. 모라가 문전으로 쇄도하며 머리로 내려찍듯이 시도한 슈팅은 한 번 바운드가 되풀이된 뒤 골대 왼쪽으로 향했다. /연합뉴스



28일 국민생활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광주시선수단 해단식'에서 이용섭 광주시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김광아 광주시체육회장 직무대행 등 내빈들이 우수단체·선수·지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광주시체육회, 제102회 전국체전 해단식 개최

검도, 사격 등 우수단체·선수·지도자 포상 격려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고등부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둔 광주시체육회가 28일 국민생활관 세미나실에서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광주시선수단 해단식'을 개최했다.

이날 해단식에는 이용섭 광주시장을 비롯한 광주시, 광주시교육청 관계자 등 49명이 참석해 고등부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둔 입상단체, 선수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광주선수단은 이번 전국체전에서 고등부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둔 만큼 해당 종목단체 내에서 상위 메달을 획득한 우수단체가 8개 단체나 배출됐다. 검도, 사격, 야구소프트볼, 펜수영, 체조, 농구, 소프트테니스, 에어로빅합창 등

이 우수한 성적을 거둔 포상금을 받았다.

사격 공기소총 단체전에서 한국주니어인기기록을 수립한 김정현·오준서·최대한·황의혁(이상 광주체고)과 개인전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한 최대한은 기념패와 포상금을 받았다.

역도와 체조에서 3관왕을 달성한 나민주(정광고)와 서정원(광주체고), 2관왕을 차지한 핀수영 양현지(광주체고), 역도 황수민(정광고), 수영 김지현(광주체고), 레슬링 윤동현(광주체고)도 각각 포상금을 받았다.

또 육상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김찬송(광주체고)과 태권도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김지연(광주체고)도 선수 대표로

포상금을 전달받았다. 우수 선수들을 조련한 입상팀 지도자들에 대한 표창도 이어졌다.

역도에서 다관왕을 배출한 박경열(정광고) 감독과 금메달 4개·은메달 4개·동메달 2개 총 10개의 메달을 획득한 체조 정해업(광주체고) 코치는 각각 포상품과 포상금을 받았다.

이용섭 시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불굴의 정신으로 고등부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둔 학생 선수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여러분이 광주체육의 미래이자 대한민국 체육을 이끌어갈 주역”이라고 선수단을 격려했다.

한편, 광주선수단은 코로나19로 고등부 대회로 축소 개최된 이번 제102회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26개, 은메달 25개, 동메달 23개 등 총 74개 금메달과 총 74개의 메달을 획득해 광주-전남 분리 이후 고등부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박희중 기자